

보험산업의 준법경영 토대 마련한 전문변호사

‘송무·인하우스 경험 결합’, 차별화된 법률 해법 제시

| 유창현 | 법무법인(유한) 예울 파트너변호사

유창현 법무법인(유한) 예울 파트너변호사는 자타가 공인하는 보험 분야 전문가다. 그는 코스닥 상장 법인보험대리점(GA) 등에서 사내변호사로 맹활약하며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업 규제에 대응하는 실효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금융업권의 특성이 반영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함으로써 기업의 성장 발전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경험을 주춧돌 삼아 유창현 파트너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예울에서 송무와 자문, 포지션을 가리지 않고 투입되는 '보험 분야의 리베로'로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실현할 계획이다.

송무와 기업 법무 아우르는 탄탄한 업력

유 변호사는 대한민국 보험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온 인물로 손꼽힌다. 그는 11년간 상장사와 자회사, 핀테크 GA의 사내변호사로 재직하며 준법경영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일조해 왔다. 특히 기업 법무 총괄 및 보험대리점협회 주요 정책자문 TF 참여, 코스닥 IPO를 위한 법규 부문 대응을 주도하고 금융감독원에서 요구하는 각종 정기·상시 보고서 및 공시 자료 작성을 주관했다. 또 IT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확한 지표가 전산으로 산출될 수 있도록 사전지표관리 시스템을 내부통제제도로 내재화했다. 이러한 혁신적인 내부 통제 고도화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유 변호사는 금융감독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지난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강소로펌에서 NPL 및 유동화자산 등에 관한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변호사로서 전문 역량을 폭넓게 발휘하고자 기업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인카금융서비스(주) 준법감시인, 피플라이프(주) CCO, 토스인슈어런스(주) 법률 고문을 역임하면서 기업 법무를 총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리스크관리팀과 협업과 레퍼런스를 제공하고 100여 건에 달하는 소송을 직접 수행한 바 있습니다.”

유 변호사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노하우를 토대로 개인 및 기업 고객과 함께하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역할하고자 법무법인(유한) 예울에 합류했다. 그는 전문변호사로서 보험 및

민사, 형사 분야를 두루 다루면서 기업 법무와 주요 정책 자문 등에도 참여하고 있다.

풍부한 현장 경험 기반의 전략적 변론 강점

“기업과 개인의 법률 리스크는 단순히 법전을 해석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산업의 생리와 규제의 맥락, 그리고 당국의 정책 방향을 꿰뚫어 보는 ‘실무적 감각’이 필수입니다. 저는 그간 캠코, 유동화전문회사, 공기업, 지방자치단체의 550여 건에 달하는 소송과 자문을 수행하면서 행정과 민사를 아우르는 폭넓은 식견을 갖췄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예상치 못한 변수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최적의 해답을 찾아내는 위기관리 능력의 기반이 됐습니다.”

유 변호사는 법정과 금융산업 최전선에서 쌓아온 업무 내공을 토대로 ▲임금이의·임대차·유치권·양수금 등 유동화자산 관련 소송 ▲국유재산 관련 소송 ▲수수료환수 등 GA 관련 소송 ▲각종 보전처분 및 민사·가사·행정소송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익반환, 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소송 ▲공기업·지방자치단체 자문 등에서 치열한 법리 연구를 통해 고객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실익 증진을 도모한 바 있다. 그중 GA 지점 폐쇄 및 해촉에 따른 위약벌 반환 청구 소송의 원고 측 법률대리인으로 유의미한 판결을 꾀한 것이 대표적 성과다. 유 변호사는 보험업계 내부의 관행 및 보험영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했다. 쟁점이었던 위약벌 조항의 효력을 파고들며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탄탄한 법리를 구성했다. 그리고 대상 규정의 정의, 목적에 따라 정당한 위약벌임을 입증하면서 승소를 이끌었다.

“특히 GA 분쟁은 수천 명에 달하는 설계사 조직의 정착지원금 및 수수료 환수 체계, 금융감독원의 정량·정성적 상시 감시지표,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이 중첩 적용되는 IT/전산 인프라에 대한 이해가 핵심입니다. 일반적인 법리 대응을 넘어 GA 업계 고유의 영업 생리와 규제 기관의 관리 기준에 대한 식견을 토대로 효과적인 변론 전략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규제 리스크 대응 위한 컴플라이언스 구축 강조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과 복잡해지는 규제 장벽 속에서 기업의 생존을 담보하는 핵심 키워드는 단연 ‘컴플라이언스(Internal Control & Compliance)’다. 특히 최근 수년간 비

인카가족의 ‘페이스메이커’



인카금융서비스(주) 준법감시실장 유창현

인카금융서비스 영업가족 및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봄의 꽃샘 추위도 지나가고 싱그러운 봄,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3월 준법감시실장으로 선임된 변호사 유창현입니다.

▲ 유창현 변호사는 인카금융서비스(주) 준법감시실장을 역임한 바 있다

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금융 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보험 GA 업체는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 강화와 내부통제 고도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 보험대리점과 보험영업조직의 각종 법률 자문과 소송을 주도해 온 유 변호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강화 등으로 인해 금융회사 및 GA에 요구되는 내부통제 기준이 엄격해졌다”며 “GA는 이를 고려해



사전 컴플라이언스 구축에 나서 금융감독원 지침과 규제를 준수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그는 전문변호사의 정기적 자문을 통해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야말로 보험영업에 관한 권리 보호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현장 경험 녹여낸 전략파트너로 행보 주목

인터뷰 말미 유 변호사는 전문변호사로서의 광폭 행보를 예고했다.

“중소 및 대형 GA들이 상시 직면하는 설계사 수수료 분쟁, 환수 소송, 금융감독원 검사 및 제재 대응에 있어 ‘명쾌하고 실행 가능한 해법을 제공하는 전문변호사’로 안착하는 것이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개업변호사로서의 행보를 시작한 만큼, 지난 15년간 축적한 송무 경험과 대형 GA 준법감시인·CCO로서 쌓아온 독보적인 필드 노하우를 법무법인(유한) 예울의 시스템과 결합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사후 분쟁을 해결하는 송무 영역을 넘어, 금융·보험 기업의 설립부터 상장(IPO), 제도 개선 및 정책 자문까지 아우르는 금융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전문 로펌의 리더로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산업과 규제를 둘러싼 환경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시대다. 단순한 법률 지식만으로는 급변하는 업권의 흐름과 감독 당국의 정책 기조를 따라가기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유창현 변호사는 산업 현장 최전선에서 축적한 실무 경험과 정교한 법리 해석 역량을 바탕으로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실효적인 해법을 제시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 그가 앞으로도 송무와 자문을 넘나드는 입체적인 법률서비스를 통해 대한민국의 건전한 성장과 권리 보호에 의미 있는 역할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NR 뉴스리포트=김은비 기자



유창현 변호사 Profile

- 卒** 대원외국어고등학교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
- 現** 법무법인(유한)예울 파트너변호사
- 前** 토스인슈어런스(주) Legal Counsel
피플라이프(주) CCO
인카금융서비스(주) 준법감시인
법무법인 이래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대의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내변호사 특별위원회 위원
- 수상** 금융감독원장 표창(2017)